

남구, 골목상점 '온라인 쇼핑몰 진출' 지원

상점가 디지털 마케팅 본격화 내달 참여 상점 20여곳 모집

광주 남구는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진출을 돕는 골목상점 디지털 마케팅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남구는 골목형 상점가인 백운대성시장과 용대로 상점가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골목상점 디지털 마케팅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골목상점 디지털 마케팅 지원사업은 소비자들의 온라인 구매 증가 등 구매 패턴 변화에 발맞춰 골목상점 상인들의 온라인 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장기간 불경기가 이어지면서 활력을 잃은 지역 상권에 신바람을 불어 넣기 위해 마련됐다.

남구는 이달 중으로 골목상점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진출 업무를 도맡아 진행할 전문 업체를 선정할 방침이다.

선정 업체에서는 네이버 지도와 연계해 가게 상세 정보를 검색하고 확인하는 네이버 플레이스에 골목상점의 홈페이지

를 비롯해 상점별 로고, 쇼츠 홍보 영상 등을 제작해 업로드하고, 각종 SNS에 관련 자료를 게시하는 일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남구는 오는 6월부터 골목상점 디지털 마케팅 지원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 모집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모집 대상은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백운대성시장과 용대로 상점가 안에 반드시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대상이 아닌 업종과 무등록·무허가·무점포 업체, 휴·폐업 또는 세금 체납 업체, 허위 및 부정

한 방법으로 신청한 업체,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은 참여할 수 없다.

골목상점 참여 업체 선정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현장 실사 및 사업주 면접을 진행한 뒤 고득점 순으로 결정하며 20여 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남구 관계자는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온라인 소비시장 규모가 날로 커지고 있다"며 "골목상점 디지털 마케팅 지원사업은 관내 골목상점의 온라인 마케팅을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에도 보탬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정상이 기자 sanga.jeong@nilbo.com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종료 광산구의회

광주 광산구의회는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1일까지 이뤄진 2023회계연도 결산 검사를 마무리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결산검사는 대표위원인 강한솔 의원과 나진수 공인회계사, 조희훈 세무사, 신승룡 세무사 등 총 4명의 위원이 참여해 광산구의 세입·세출 결산과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 재정 운영 전반을 살피고 예산집행이 당초 목적에 부합하게 이뤄졌는지를 집중 검사했다.

광산구의 결산 규모는 지난해 총세입 1조 1430억원, 총세출 9639억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6%, 4% 감소했고 순세계잉여금은 862억원으로 전년 대비 13% 감소했다.

검사 결과 위원들은 △성인지예산 성과지표의 적정성·일관성 확보 및 환류기능 보완 △광산구시설관리공단 금고관리위원회 자금집행 △미수납액 및 정리보류액에 대한 지속적 관리 철저 등 3건의 개선사항을 제시했다.

김상철 기자

북구-베트남 바돈시 경제 MOU 스마트 농업 기술 등

광주 북구는 국제 우호 도시인 베트남 팜빈성 바돈시와 '투자유치 MOU' 계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바돈시 인민위원장 도안민 토, 당 홍보부장 카오 순 덕, 인민위원회 사무실장 레민 힝 등 4명으로 구성된 '바돈시 공식 대표단'은 오는 9일부터 10일까지 2일간 국제교류 우호 증진을 위해 북구에 방문한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4월 북구 공식 대표단의 바돈시 방문 시 스마트팜, 태양광, 관광 등 양 도시 상생 발전방안으로 논의했던 다양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답방 형식으로 마련됐다. 이에 북구는 관련 분야 기업과 지속적인 네트워크로 스마트 농업 기술력의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지역 스마트팜 유망기업과 바돈시의 투자유치 매칭을 성사했다.

바돈시 공식 대표단은 교류 첫날 스마트팜 현장 견학을 통해 첨단 농업의 우수성을 눈으로 직접 확인한 뒤 북구청에 마련된 공식 환영 행사 참석하고 이후 스마트팜 유망기업과 '50만 달러 규모 투자유치 MOU 계약'을 체결한다.

정성현 기자

독거 어르신 마음채움 프로그램 서구, 민관협력 커플링사업

광주 서구는 홀로 사는 남성 어르신들의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구우울감 해소를 위해 '헬로 홀로(Hello, Hollo)·홀로할아버지 마음채움 100'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8일 서구에 따르면 이번 프로그램은 돌봄과 도움이 필요한 복지사업과 후원자를 매칭하는 민·관협력 커플링사업의 일환이다. 지난해(추천지문화원(대표 배창숙))이 사회적으로 고립돼 홀로 살아가는 남성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을 위해 기탁한 2000만원을 활용해 운영된다.

프로그램 대상은 민간 고독사예방관으로 활동 중인 이웃돌봄단에 의해 발견된 고립자 중 '외로움 척도(UCLA) 및 우울감 척도 조사' 결과 고독사 위험군으로 판별된 65세 이상 남성 어르신 72명이다.

서구는 오는 11월까지 매달 1회 사회관계망 형성을 위한 봄·가을소풍, 문화나들이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한다.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이웃돌봄단이 참여자의 안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강주비 기자



광주 동구가 지난 2일 '청렴 동구 추진 보고회'를 열었다.

광주 동구 제공

동구, 청렴도 1등급 도약 '청렴 추진 보고회'

부패·취약 분야 자율 개선 1부서 1청렴 시책 발굴 계획

광주 동구는 지난 2일 '청렴 동구 추진 보고회'를 열고 5년 연속 달성한 종합청렴도 2등급을 넘어 1등급을 향한 도약을 위한 다짐의 시간을 가졌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1년간 추진해 온 부패 취약 분야 발굴 및 개선 노력과 더불어 올해 1등급 달성을 위한 청렴 정책과 실행 계획을 공유하고, 추진 기반을 다져 청렴도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보고회는 임택 동구청장을 비롯한 주요 부서 핵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도 향상을 위한 3대 추진 전략과 1부서 1청렴시책 추진 계획 등에 대한 토론을 펼쳤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3대 추진 전략으로는 △청렴 정책 실효성 제고 및 청렴 활동 활성화를 통해 반부패 환경 구축 △청렴 의식 내재화 및 청렴문화 확산으로 상호 존중하는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 △부패 사전 예방 및 인식개선 활동으로 대내외적으로 신뢰받는 구정 실현 등이다.

보고회는 6개 추진 과제와 38개 세부 과제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공유했다. 또한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부패 발생 가능성을 사전 발굴을 비롯해 인허가, 보조금, 계약 등 민원 만족도 향상 시책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송민섭 기자

남구, 다함께 돌봄센터 6호점 '돌봄 초등생' 모집

20명 선착순... 이용료 월 3만원

광주 남구가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 강화 및 맞벌이 가정의 자녀 돌봄 걱정 해소를 위해 노대동에 다함께 돌봄센터 6호점 문을 열고 시설 이용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다함께 돌봄센터 6호점은 가족사랑나눔 센터 1층에 27평(89㎡) 크기로 마련됐으며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을 위한 공간이다.

이곳 센터에서는 초등학교 정규 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공통 프로그램으로는 자유 놀이를 비



광주 남구는 노대동에 다함께 돌봄센터 6호점을 개소하고 시설 이용자를 공개 모집한다.

광주 남구 제공

롯해 외부 강사와 함께하는 체육활동 등

신체활동과 또래 놀이, 숙제 및 독서 지도, 기초학습 지도 등이 있다. 특별활동 프로그램으로 언어활동과 인성 교육, 예체능 및 과학 교육, 각종 체험활동을 지원한다.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며 방학 중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문을 연다.

모집 인원은 20명 선착순이며, 돌봄센터 이용료는 초등학생 자녀의 간식 비용으로 월 3만원이다.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부모는 다함께 돌봄센터 6호점(655-7982)으로 전화 문의하거나, 돌봄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정상이 기자

5·18 기념 특별작품 전시회 17일까지 북구 자미갤러리

광주 북구는 제44주년 5·18 민주화운동을 기념한 '5·18+1 기획 초대전'이 7일부터 17일까지 광주 북구 자미갤러리에서 열린다고 8일 밝혔다.

한진수 작가의 5·18 관련 사진 60점을 비롯해 정민수 작가의 '유공자 자녀로서 알고 있는 5·18' 등 초대 작가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기억하는 5·18의 이야기를 풀어냈다.

초대전 운영시간은 전시 기간 당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관람료는 무료이며 자세한 사항은 자미갤러리나 북구청 문화예술과로 문의하면 된다.

문인 북구청장은 "광주민주항쟁 44주년을 맞아 희생정신과 의의를 되새겨보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성현 기자

복합청사 '송정다누리' 개청 광산구 송정1동

광주 광산구는 송정1동 복합청사 '송정다누리'가 문을 열었다고 8일 밝혔다. 송정다누리는 지하 1층, 지상 6층, 연면적 5228㎡의 규모로 조성됐다.

1층에는 송정1동 행정복지센터, 2층에는 작은도서관·공유주방이 마련됐다. 3층에는 드림스타트·언어발달실, 4층에는 가족센터가 들어섰다.

송정다누리에는 가족센터와 청소년문화의 집, 국민체육센터 등이 차례로 입주할 예정이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주민 누구나 다 함께 누리는 열린 공간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상철 기자